칸트의 정신병리론과 철학상담의 가능성 모색

권오상*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편견에 대하여
  1) 편견의 개념
  2) 편견의 원인
  3) 편견의 형태들
  4) 논리적 이기주의
3. 정신병리 현상
  1) 편견과 정신장애의 관계
  2) 정신장애와 인지장애
  3) 인지장애의 분류
4. 나가는 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칸트의 『논리학』에 나타난 편견의 개념을 분석하고 그것이 정신장애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한 그것이 정신장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해 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칸트가 논리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편견의 개념과 그 원인, 형태들에

*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대해 설명하고, 그 형태들 중에서도 논리적 이기주의가 무엇이며, 그것이 정신장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칸트의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에 나타나는 정신장애의 종류들에 대해 고찰해 보고, 그것이 편견 특히 논리적 이기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고자 한다.

칸트는 편견의 개념을 건강한 지성이 오류를 일으키는 방식을 기술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편견은 인식의 잘못된 원리들로서 그 작용은 여러 가지 인식의 오류들을 일으키며, 심리학적으로는 지성의 실제적 작용을 왜곡시킨다. 칸트는 그러한 편견이 모방, 습관, 그리고 경향성이라는 세 가지 원천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편견에는 과도한 신뢰와 불신을 일으키는 편견, 군중의 위세에 의한 편견, 위신에 의한 편견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논리적 이기주의는 중요한 정신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논리적 이기주의란 나의 개인적인 지성에만 일치하고, 다른 사람들의 보편적 지성의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러한 인식은 올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칸트는 그의 인간학에서 인간의 정신장애를 정신지체와 정신착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신착란은 다시 정신박약, 정신이상, 치매, 광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높은 인지기능에 의한 질병과 낮은 인지기능에 의한 질병으로 구분하여, 전자에는 정신박약, 정신이상, 광기를, 낮은 인지기능에는 치매와 우울증을 배정하고 있다. 정신이상은 착란된 판단력에서, 정신박약은 지성능력의 곡해에서, 광기는 착란된 이성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본다. 또한 치매는 객관적인 상상력의 표상을 외감으로부터 온 지각으로 보는데서 발생한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심기증의 정신장애는 지체나 착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의 장애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칸트는 우울증은 정신착란의 다른 쪽 경계면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아직 정신착란이 아니

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신장애에 대한 설명과 논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칸트가 강조하는 것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의 것에 의해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방해받는다는 사실이다. 정신착란의 원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의 시금석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논리적 이기주의는 칸트의 제 1비판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볼 때 주관적 타당성만을 지닌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아직 보편 필연적인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다 객관타당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철학상담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왜곡된 인지구조가 정신병리를 유발한다고 보고 그것을 수정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지치료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철학상담은 사고의 편향성과 경직성을 제거함으로써 내담자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현실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편견, 논리적 이기주의, 정신장애, 정신착란, 우울증, 철학상담, 인지치료

1. 들어가는 말

칸트의 철학을 심리학적으로, 또는 상담학적으로 해석한 경우는 많지 않다. 1990년 키쳐(Kitcher)가 『칸트의 선험심리학』(Kant's transcendental psychology)을 출간한 것이 최초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칸트의 경험심리학』이 출간되었다. 그것은 칸트의 철학을 경험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정신병리학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칸트 철학의 이해 범위를 상당히 넓힌 저작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것은 칸트의 철학을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칸트의 철학은 심리학의 분류에 따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지심리학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지각, 범주, 개념적 사고, 형태재인, 지식표상, 기억, 추론, 판단 등 인지심리학[1]에서 다루어지는 학문적 내용들은 칸트의 철학에서 발견되는 개념들과 유사한 점이 많다. 물론 현대의 인지심리학은 경험과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칸트의 철학적 개념들과는 다른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 근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통분모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칸트의 철학은 상담학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 인지치료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인지적 정서치료를 개발한 엘리스(A. Ellis)는 그의 저서에서 칸트 저작의 인식과 관념작용의 힘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다.[2] 또한 현대의 인지치료를 개발한 아론 벡(A. Beck)의 이론을 살펴보면,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견해에 칸트의 철학이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인지도식(schema)이나 인지 구조(cognitive structure) 등의 개념에서도 칸트의 철학적 요소를 발견해 볼 수 있다.[3]

그러나 이러한 인지적 정서치료나 인지치료는 정신장애가 드러나는 심리학적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론에 치

---

1) 이정모 외 저, 『인지심리학』, 학지사, 2009, 15-21 ; 존 로버트 앤더슨 지음, 이영애 옮김, 『인지심리학과 그 응용』,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 pp. 10-14.

2) Albert Ellis, W. Dryden, *The Practice of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97, p. 2. 엘리스가 칸트 철학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서 감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3) 권석만 저,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 학지사, 2012, pp. 239-243.

우쳐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다시 말해서 인지적 정신장애가 발생하는 정신병리학적 설명은 미흡한 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그러한 인지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철학적이고 정신병리학적 측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논자는 그것을 특히 최근 연구된 프라이어슨의 『칸트의 경험심리학』[4]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저작은 인간의 행동과 인식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칸트의 경험적 설명을 다루고 있으며, 인간의 편견과 정신장애에 대한 인지적 결함과 정서 및 의지에 관한 자유의지의 결함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편견과 정신장애에 대한 인지적 결함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정서적 의지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다음 논문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칸트가 정신병리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의 §45-53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내용에 대한 고찰에서 칸트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은 현대의 정신병리학에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논자는 그 개념들을 최대한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적 개념에 가깝게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2. 편견에 대하여

1) 편견의 개념

칸트는 편견을 건강한 지성이 오류를 일으키는 방식을 기술하는

4) Patrick. R. Freierson, *Kant's Empiric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2014) (이하 Freierson으로 표기)

개념으로 사용한다. 편견은 인식의 잘못된 원리들로서, 칸트는 그러한 편견들의 기원과 그 작용의 인과적 설명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높은 규범적 인식은 그 특수한 원리에 따라 하나의 인지상태로부터 다른 인지상태로 전환하는 것에 체계적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편견은 하나의 인지상태로부터 다른 인지상태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편견의 작용은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인식의 오류들에 대한 설명이며, 심리학적으로는 지성의 실제적 작용을 어떻게 왜곡시키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칸트의 편견 개념을 몇 가지 의미로 구분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우선 그 하나는 편견이 일종의 유예와 관련된 것으로서 임시적 판단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칸트는 편견(Präjudicium)이라는 말이 다음과 같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 "첫째, 잠정적인 판단(vorläufiges Urtheil)은 아직 실제적인 편견(wirckliches Vorurtheil)은 아니다. 둘째, 다음의 예는 실제적인 편견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그 사람의 글을 높이 평가한다면, 이것은 아직 본래적인 편견(eigentliches Vorurtheil)은 아니나, 이성이 잘 알려진 근거에서 어떤 것을 추론한 것으로서 다만 잠정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5]

그런데 이 문장이 갖는 의미는 매우 불명료해 보인다. 그래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함으로써 편견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편견은 어떤 것에 대해서 참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어떤 사실(Sache)에 관한 얼마 안 되는 적은 근거에 의해서

---

5) Kant's *Vorlesung über Logik,* Band Ⅰ, (Kant's gesammelte Schriften Band XXIV, Walter de Gruyter & Co. Berlin, 1966), p. 161. (이하 Logik으로 표기)

그것을 생각하고 표상하는 것이다."[6]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아직 독단(Dogmatisch)이 아니며, 일종의 유예(지체; Aufschub)와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거짓 판단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일반적 원리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임시적 판단이다.[7]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칸트의 편견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인식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서, 혹은 인식의 주관적 근거가 되는 주관적 성질들(Eigenschaften)에 대한 인식으로서 우리에게 발생한다. 모든 숙고 앞에 놓인 진리를 선취하는 주관적 근거(Ein Subjectiver Grund des Vorwahrhaltens)는 지성의 필연적 작용을 위한 것이자, 유용한 작용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그것을 편견(선입견, VorUrtheil)이라 부를 수 있다."[8]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편견이 인식의 주관적 근거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편견은 원칙적으로 이성의 메카니즘(심리과정)이며, 그것은 객관적으로 간주되나 주관적 원인에 기인하는 판단을 위한 원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 근거는 지성에 놓여 있고, 주관적 원인은 모두 감성에 놓여 있는 것으로 편견의 원천은 주관적 원인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견은 거짓된 객관적 근거를 유지하며 원리의 자리에서 작용하고, 그래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9] 여기에서 그러한 편견의 기능은 잘못된 판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추론을 만드는 원리(principles)로서 작용한다

---

6) Logik, p. 161.
7) Patrick. R. Freierson, *Kant's Empiric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2014), p. 190.
8) Logik, p. 162.
9) Logik, pp. 863-865.

는 것이다.[10]

이와 같이 편견은 주관적 근거에서 나온 판단의 원칙으로서 그 모든 근거는 주관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판단은 어떤 것이 나에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지 대상(Gegenstand)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모든 판단의 근거는 반드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객관적 근거는 주관적 원인과는 대립되는 것이며, 나는 그 근거에 의해 어떤 보편적인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주관적인 원인에 의한 판단은 사람의 특정한 상태에 작용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다.[11] 그러므로 편견의 근원은 주관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를 갖는 것으로 잘 못 간주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지성은 잘못 안내되며, 주관적 근거를 갖는 것을 객관적 근거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감성의 간섭에 의한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12]

2) 편견의 원인

그렇다면 인간의 인식에서 그러한 편견이 나타나는 원인이자 원천은 무엇인가? 칸트는 그러한 편견의 세 가지 원천으로 모방, 습관, 그리고 경향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원천이 세상의 모든 편견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편견에 의해서 진리(Wahrheit)는 매우 자주 거추장스러운 어떤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13] 그러한 편견의 원인에 대하여 칸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0) Freierson, p. 191.
11) Logik, p. 864.
12) Logik, p. 866.
13) Logik, p. 167.

우선 모방(Nachahmung)은 인간 지성의 확장적 탐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것은 다른 본보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방하여 확장된다. 그래서 모방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한 어떤 것을 진리로서 선취하는 근거가 된다.[14]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는 그의 감수성에 생긴 첫 인상을 아주 가벼운 것으로 알다가 나중에는 보다 크고 중요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오래전부터 그러한 것으로 간직하게 된다. 여기서는 숙고(Überlegung)하는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장된 어떤 것을 분별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숙고함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유약한 어린시절에 잘못된 개념과 상(像, Bilder)을 표상하도록 가르쳐지게 되며, 나중에 이러한 것은 그 아이의 상상력이나 구상력에서 전혀 제거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갖게 된다.[15]

둘째, 습관(Gewohnheit)은 편견의 두 번째 근원으로서 모방이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비해 습관은 나이든 사람들에게 더 강하다. 습관의 편견은 시간의 길이만큼 간직될 수 있다.[16] 습관은 많은 해로운 편견의 매우 풍부한 원천이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의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시행하게 되면, 보다 잘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한번 습관화되면, 결국 연속된 시간과 함께 필연적인 방법을 알게 된다. 칸트는 습관을 유행과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유행이 갖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것은 칭찬할만하고 좋은 것이나, 그것은 언제나 이전에 하던 대로 참고 견디며 하는 것이어서 내적으로

14) Logik, p. 864. 칸트는 이러한 모방이 무지한 사람, 어린아이, 그리고 비천한 사람에게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15) Logik, p. 166.

16) Logik, p. 864.

는 바보가 되지만 외적으로는 유행이 된다. 그래서 유행에 따라 다시 판단하고, 결론짓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전혀 사려가 없다는 증거다."[17]

셋째, 경향성(Neigung) 혹은 편벽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조사하기 이전에 이익이 되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다.[18] 경향성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 마음의 성향(Disposition)이며, 아주 매혹적인 것으로서 이런 저런 사실(사태)에서 특수하게 발생하고, 사람들의 특수한 이해관계나 특별한 관심과 얽혀 있다.[19] 경향성은 사람들의 판단의 원인이자 근거가 되며,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은 것, 만족스러운 것, 온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경향성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만족스럽고 우리의 취향에 맞는 것이라고 우리를 자극한다.

경향성이 유발되면 우리는 항상 어느 한쪽 측면에서만 증거를 찾고 고찰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 측면에서만 그것이 그러한 것이기를,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른 측면, 즉 반대편에 주어질 수 있는 가능한 충분한 근거를 전혀 조사해 보지 않게 한다. 여기에는 지성과 마찬가지로 이성의 법칙이 부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는 어떤 숙고도 있을 수 없으며 단지 감각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다.[20]

3) 편견의 형태들

칸트는 그의 논리학 강의에서 거짓된 믿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

17) Logik, p. 167.
18) Logik, p. 864.
19) Logik, p. 162.
20) Logik, p. 167.

여러 가지 편견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다. 그의 편견의 목록들에는 과도한 신뢰와 불신을 일으키는 편견, 군중의 위신에 의한 편견, 전통의 위신에 의한 편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21] 그리고 거기에는 논리적 이기주의(logical egoism)가 포함된다. 이제 이러한 칸트의 편견 목록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신장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 이기주의의 편견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과도한 신뢰와 불신의 편견을 살펴보자. 과도한 신뢰의 편견은 어떤 진실된 판단이 없이 인식의 욕구를 넓히려는 데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인식의 욕구를 확충하려고 하며, 그래서 열심히 발언하거나 메모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와 반대로 나이든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하였으며, 많은 인식을 하였고, 많은 현혹을 참고 견뎠으므로 그런 인식의 확충 욕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큰 불신의 편견에서는 일종의 장점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총명함과 학식을 과연 진실된 것인지 판단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22]

둘째는 군중의 편견이다.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것을 보다 잘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두 세 사람이 말하는 것에는 놀라지 않으나, 수천사람이 말한다면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을 옳다고 하며 실제로 객관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 될 수가 있다.[23]

셋째는 전통의 편견으로서 그것은 옛것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다. 옛날로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언제

21) Logik, pp. 174-179.
22) Logik, p. 174.
23) Logik, p. 175.

나 그 자체로서 가상(Schein)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결론짓는다.

넷째, 칸트는 논리적 이기주의를 그의 논리학 강의와 인간학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 그것은 칸트가 논리적 이기주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정신장애의 문제와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4) 논리적 이기주의

칸트는 그의 논리학 강의에서 논리적 이기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논리적인 것은 우리가 온전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인식과의 일치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 그의 판단이 다른 사람의 판단과 조정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른 지성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올바로 판단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인식이 나의 사적인(privat) 지성에만 일치하고,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인식은 올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공유하고자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려는 경향성을 갖는다.[24] 그런데 논리적 이기주의는 그러한 장점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성의 풍요로움과 개선 가능성을 박탈해 버린다. 이러한 칸트의 논의는 논리적 이기주의를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24) Logik, p. 187.

생각된다.

칸트는 그의 인간학에서 이러한 논리적 이기주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칸트는 이기주의가 논리적, 미학적, 실천적인 것의 세 가지 전제를 갖는다고 말한다. 우선 논리적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의 이성에 의한 판단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거기에는 사고를 위한 어떤 시금석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25] 칸트는 이 문제를 수학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만약 한 사람의 수학자가 만들어낸 기하학적 판단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인정받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그 수학자의 판단은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26]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고를 정립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호소해야 한다.

미학적 이기주의는 비록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비판하거나, 그의 시(verse)나, 그림이나, 음악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그 자신과 그 자신의 판단에서 고립되며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을 박탈시킨다. 오히려 그는 그 자신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며, 오직 그 자신 안에서만 아름다움의 시금석을 찾는다.[27]

도덕적 이기주의자는 모든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제한하는 사람이다. 마치 행복주의자와 같이 그는 자신의 의지의 최고 모티브를 그 자신의 행복에 두고 의무의 개념 위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

25) I. Kant,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Kant's gesammelte Schriften Band Ⅶ, Druck und Verlag von Georg Reimer, Berlin, 1917, p. 128. (이하 Anthropologie로 표기)

26) Anthropologie, p. 129.

27) Anthropologie, p. 129.

다시 말해서 보편 타당한 원리가 되어야만 하는 진정한 의무의 개념에 대한 시금석이 없기 때문에 그를 이기주의자로 만든다. 결과적으로 모든 행복주의자들은 이기주의자들이다.[28] 이와 같이 이기주의는 마음의 틀을 자기 자신 안에 가둔다. 그는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마치 전체 세계인양 생각하며 동시에 그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서 이해하고 행동한다.

3. 정신병리 현상

1) 편견과 정신장애의 관계

프라이어슨은 이러한 칸트의 편견에 대한 논의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신장애(mental disorder)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 "정신이상에서는 사고의 기능이 사물의 참된 인식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정신장애에 대한 그의 논의를 관통하는 태도는 광기(madness)에 대한 후기 중세의 개념 - "광기는 (지식을 구성하는) 어렵고,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배움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과는 거리가 멀다."[29]

이러한 논의를 칸트의 제 1 비판과 관련하여 고찰해 본다면, 우선 칸트는 객관주의적 실재론을 배제한다. 즉, 세계가 우리의 인지구조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배제한다. 다음으로 칸트는 주관주의를 배제하는데 이것이 정신장애에 대한 그

---

28) Anthropologie, p. 130.
29) Freierson, p. 212.

의 설명과 관계된다. 주관주의는 우리의 인지구조를 통하여 여과된 세계에 관한 개인적 지각에 근거하여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사실상 그는 광기와 진실 사이의 상이함에 대한 주장과 함께 인지구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광기는 상식적 판단의 극단적인 형태이며, '논리적 이기주의(logical egoism)'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논리적 이기주의는 진리에 대해 정반대로 드러난다.

> "논리적 이기주의는 아무도 어떤 것을 판단할 위치에 놓여있지 않거나 그것에 대한 보다 더 낳은 통찰을 할 위치에 놓여있지 않을 때, 자기 혼자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의 판단을 다른 사람의 판단과 비교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의 판단을 다른 사람의 오성으로 시험해 볼 수 없다면, 그는 그가 옳게 혹은 그르게 판단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하나의 인식이 나의 개인적인 지성과 일치할 때는 옳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의 지성의 보편법칙과 일치할 때는 옳은 것이다."[30]

지성의 시금석은 어떤 개인의 판단을 다른 사람의 통찰과 비교할 때 명확하게 된다. 상호주관적인 비교(intersubjective comparison)의 필요성은 왜 편견이 문제가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것은 편견의 근본 원천이 주관적인 동기에 있으며 객관적인 근거에 대하여 그릇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31]

2) 정신장애와 인지장애

실용적 인간학 §45~53, "인식능력과 관련한 영혼의 약함과 질병

---

30) Logik, p. 187.
31) Logik, p. 864.

에 관하여"를 살펴보면 칸트는 인간의 정신장애(mental disorder)[32] 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정신장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그러한 그의 설명은 인간의 정신 능력을 경험적으로 탐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33]

칸트는 정신장애에 대한 그의 이론을 능력심리학(faculty psychology)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있다. 마음은 인지, 감정, 욕구의 세 가지의 근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서로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그 각각의 능력에 대해 특수한 정신장애들을 포함시킨다.[34]

칸트는 서로 작용하는 각각의 심리적 기능(인지, 감정, 욕구)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장애들을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정신장애들은 결과적으로 인지기능(the faculty of cognition)과

---

32) 정신장애는 정신지체(mental deficiencies)와 정신질환(mental illness)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대 정신의학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또한 정신신경증(psychoneurosis)과 정신병(psysis)로 나뉜다. 정신병은 망상, 환각, 착란, 기억장애 등 사회적, 개인적 기능장애가 심하여 사회생활로부터 철퇴된 상태로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간주된다. 정신병에는 기질적 정신장애(뇌증후군), 정신분열병, 정동장애, 망상장애 등이 있다. 정신신경증은 정상상태와 정신병적 상태의 중간에 해당되며, 정신병에서 보이는 망상이나 환각, 비합리적인 현실왜곡 등 괴상한 행동장애는 보이지 않는다. 그 증상은 현실검증능력이 손상되지 않아 미친 상태는 아니다. 그것은 대개 심인성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건강염려증, 해리성 장애 등이 있다. Freierson, p. 198 / 민성길 외, 『최신 정신의학』, 일조각, 2006, p. 167.

33) 프라이어슨은 칸트가 사용한 전문용어들은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질환(mental illness)에 대한 칸트의 설명을 현대의 독자층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칸트는 정신장애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크리스토프 클라비우스(Cristoph Clavius ; 16세기의 수학자)의 예를 들고 있다. 칸트는 그가 위트에 문제가 있어 시를 짓지는 못하지만, 오성에는 전혀 결함이 없어 위대한 수학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Frierson, p. 198.

34) Frierson, p. 199 / Anthropologie, pp. 214-217.

관련이 있으며, 거기에서 칸트는 인지적 '결함'(weaknesses)과 '질병'(illnesses)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결함은 인지능력의 부족이거나 그 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질병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작용하는 것과는 다른 인과법칙에 따라 작용하는 어떤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5]

또한 칸트는 상상력과 감각, 위트, 판단, 지성, 그리고 이성 등과 같이 서로 다르게 구분되는 인지능력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그것에 따라 인지장애를 분류하고 있다. 우리는 칸트적 관점의 인지장애 분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의 인지능력이 구분되는 기능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인지능력에서 '지체'(deficient)나 '착란'(derange)이 생기는지를 이해해야 한다.[36]

우선 정신지체와 관련하여 칸트는 판단력을 좁은 의미로 세분하고 있다. "보편을 위해 특수를 발견하는 기능, 그리고 우리가 '위트'(wit)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특수를 위해 보편을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37] 그런데 이러한 능력들의 결함은 적절한 인지능력의 부재(우둔함)이거나, 그 능력과 기능들의 감소(바보)로 나타난다. 그리고 학습능력의 부재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한다.[38]

다음으로 정신착란과 관련한 칸트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

---

35) Frierson, p. 200.

36) Kant's Vorlesungen, Band Ⅵ, *Metaphysic*, Kant's gesammelte Schriften Band XXIX Walter de Gruyter & Co. Berlin, 1983, p. 890.

37) Anthropologie, p. 201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지능력들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오성(understanding)은 특수한 것들로부터 일반적인 것을 만들고 … 이성(reason)은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들을 만든다. … 판단력(the power of judgment)은 다른 것들 아래에 있는 한 개념의 포섭이다.(하나의 개념 아래 다른 특수한 것들을 포섭한다.)"

38) Anthropologie, p. 209.

될 수 있겠다. 정신착란의 기원에 관해서 칸트는 우선 생물학적 근거에 초점을 둔다. 착란의 병원균이 복제된 병원균과 함께 발생하며 그것이 유전된다. 그런데 그러한 착란은 생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특수한 것으로 자리 잡는다. 칸트는 정신착란의 근거가 환경적인 사실들이 작용함과 동시에 생물학적인 것이 더 우세하게 작용한다고 본 것 같다. 그래서 칸트는 의사들이 병리학적 발생에 근거하여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정신착란에서 제외시켰다. 그것은 신체적인 병이며, 의학적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칸트는 특수한 장애들이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치매(demantia)와 같은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본적이 없다. 그리고 정신이상과 같은 병도 치료될 수 없다."[39]

그런데 동시에 칸트는 비생물학적 유인(誘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정신착란의 맥락 안에서 인간학이야말로 (간접적으로) 실용적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것은 정신착란이 인간성의 가장 뿌리 깊은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칸트는 미친병의 일반적인 특징이 상식의 상실(the loss of common sense), 그리고 개인의 논리적 감각의 교체(replacement)에 있다고 지적한다. 정신장애에 대한 설명과 논리적 이기주의(logical egoism)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칸트가 강조하는 것은 자유로운 표현의 제약이 상식의 결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의 것에 의해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의 논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논의는 하나의 경고로 보인다. 그것은 개인들이 그들의 판단에 대한 시험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신착란의 원인은 "이 세상에서 그가 보고, 행동하고,

39) Anthropologie, p. 215.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사고의 작용을 내던져 버린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의 시금석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40] 정신착란의 생물학적 근거가 아무리 강조된다 할지라도, 칸트는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개인의 결정이 정신착란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다.[41]

3) 인지장애의 분류

칸트는 정신착란과 관련된 정신질환을 정신박약(amentia), 치매(dementia), 정신이상(insania), 광기(vesania)로 구분한다. 그리고 정신박약은 착란된 지성, 치매는 착란된 상상, 정신이상은 착란된 판단, 광기는 착란된 이성으로 구분 짓는다.[42] 그런데 프라이어슨은 이러한 구분을 높은 인지기능에 의한 질병과 낮은 인지기능에 의한 질병으로 구분하고 높은 인지기능에 의한 질병에 정신박약, 정신이상, 광기를, 낮은 인지기능에 의한 질병에 치매와 우울증을 배정하고 있다.[43]

우선 높은 인지기능은 우리의 판단력이나 개념, 그리고 이성과 관련된 것들을 의미한다. 칸트는 인간학에서 그러한 높은 인지기능에 의한 질병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정신이상(insanity, Wahnwitz)은 착란된 판단력이다.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 비유를 만드는 능력과 같은 일반적인 판단능력이 개념 아래에 특수한 것들을 통일시키는 지성의 판단능력과 혼돈된다. 정신이상은 편견의 극단적인 형태 중 하나로서 정신기능들의 착란에 의해서 하나의

---

40) Anthropologie, p. 219.
41) Frierson, pp. 208-209.
42) Frierson, p. 204.
43) Frierson, pp. 201-204.

능력이 다른 능력에 대해 잘못 작용된 경우에 발생한다.

정신박약(amentia,Unsinnigkeit)은 오직 하나의 개념만을 작용시키고 하나의 원인만을 생각하는 경우로서 지성능력의 곡해가 낳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경험 가능성을 위해 그들의 표상들을 정합적 필연성에로 가져올 능력이 없다. 그리고 광기(craziness, Aberwitz; vesania)는 착란된 이성의 질병으로서 그런 정신질환자는 경험의 지도 위를 날라 다니며, 시금석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될 수 있는 원리들의 뒤를 따른다. 예를 들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상상을 하며, 원적법(squaring of the circle)과 삼위일체의 비밀에 관한 이해가 그들의 능력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44]

다음으로 낮은 인지기능과 관련하여 칸트는 지체(deficiencies)와 착란(derangement)을 거론하고 있다.[45] 낮은 인지기능은 다섯 가지의 외감과 내감 그리고 상상력과 관계된 것이다. 지체와 미혹의 지배를 받게 될 경우, 외감(outer senses)은 정신질환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와는 반대로 내감(inner senses)은 칸트의 정신질환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을 엿듣는 것과 같은 내감에 대한 잘못된 집중은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내적 상태를 관찰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혹에 사로잡혀 이러한 내적 상태를 잘못 해석하는 경향에서 나타난다.[46]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내감 그 자체는 지체나 질환을 겪지 않는다. 비록 내감이 환각에 빠진다할지라도 이러한 환각은 내감 그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감의 현상들을 외적 현상들로 잘못 생각해서 그것들을

44) Anthropologie, pp. 215-216.
45) Frierson, p. 202.
46) Anthropologie, pp. 132-134.

영감(inspiration ; 계시적 착상)으로 간주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내감조차도 위험천만한 종교적 열정과 광신에 빠질 수 있다.[47]

또한 상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지적 결함은 마음의 부재(absent-mindedness)라 부르는 재생적 상상력의 부재를 포함한다. 마음의 부재는 그가 떼어낼 수 없는 상상력의 재생에 의한 무의식적인 정신착란이다. 그러한 정신착란은 만약 그것이 습관적인 것이라면 치매(dementia)로 전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치매는 상상력의 정신착란이다. 그것은 잘못된 상상력의 창의적 힘에 기인하며 스스로 만들어낸 표상을 지각(perception)으로 간주한다. 치매는 광기와는 달리 내감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해 외적으로 유도된 지시를 따른다. 따라서 치매는 객관적인 상상력의 표상을 외감으로부터 온 지각으로 볼 수 있다.[48]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상상력의 장애는 지체나 착란이 아니라, 우울증(melancholia) 이나 심기증(hypochondria)과 같은 정신장애의 독특한 범주다. 우울증은 기분의 갑작스런 변화를 포함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의 고통 망상이다. 그런데 칸트는 심기증에 더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 "심기증은 어떤 신체적 느낌이 신체에 현존하는 실제의 고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에 관한 염려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본성은 어떤 특수한 성격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국지적 인상에 주의함으로써, 어떤 느낌을 강하게 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다. … 이러한 방법으로 심기증은 신체적 질병을 상상하는 원인이 된다. 그 고통은 상상으로 알려지게 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어

47) Anthropologie, p. 161.
48) Frierson, pp. 202-203.

> 떤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억제하기가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심기증은 가장 비참한 종류의 우울증이다. 그의 이미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완고함과 무모하게 신체에로 달려가는 것, 그에게는 어려움의 끝이 없으며, 다만 그를 어린아이와 같이 다룸으로써 그를 진정시킬 수 있을 뿐이다."[49]

비록 심기증이 우울증의 "가장 비참한" 형태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정신착란보다는 덜 심각한 것이다. 칸트는 우울증을 정신착란의 다른 쪽 경계면에 있다고 지적하고 우울한 자기 괴롭힘은 아직 정신착란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기증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정신장애다. 첫째로, 그것은 영혼에 관한 철학적 의사에게 특별히 잘 맞추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히 정신적 자기훈련에 의해서 예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50] 둘째로, 칸트 자신이 심기증에 대해 특별히 민감하게 느꼈다. "마음의 힘에 관하여"(Von der Macht des Gemüths)에서 칸트는 그 자신의 평면적이고 좁은 가슴에 대한 심기증의 자연적 경향성을 기술하고 있다.[51]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심기증에 몰두해 있었다. 그는 그 자신의 기분 나쁜 정신장애와 싸우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52]

4. 나가는 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견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

---

49) Anthropologie, pp. 212-213.
50) Anthropologie, pp. 212-213.
51) Anthropologie, p. 104.
52) Frierson, p. 204.

다. 편견의 여러 형태들 중에서도 특히 논리적 이기주의가 정신장애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논리적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들의 이성에 의한 판단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며, 거기에는 사고를 위한 어떤 시금석도 존재할 수 없다.

프라이어슨의 견해에 따르면 인지장애에 대한 칸트의 설명은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에서의 객관세계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의 제 1 비판이 가능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험"은 고립된 개인들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칸트는 제 1 비판에서 1인칭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53] "대상들이 우리의 인식(unserem Erkenntis)에 따라야 한다."[54] 혹은 "대상들은 우리의 표상 방식(unserer Vorstellungsart)에 따라야 한다."[55] 혹은 "모든 우리의 인식(unsere Erkenntis)은 경험과 함께 시작한다."[56]와 같은 문장들은 그러한 사회적 차원의 객관세계를 잘 말해준다.

논자는 이러한 프라이어슨의 지적을 넘어서 칸트의 철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논자는 칸트의 선험적 연역의 문제를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논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칸트가 어떻게 선험적 연역의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칸트는 왜 선험적 연역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칸트가 그의 연역의 문제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논자는 사회적 차원의 객관성 문제와 관련하여 칸트가 선험적 연역에서 설명하는 객관적 타당성(objektive Gültigkeit)의 개념에

---

53) Frierson, p. 213.

54)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ft,* Kant's gesammelte Schriften Band Ⅲ, Druck und Verlag von Georg Reimer, Berlin, 1911. B xvi.

55) B xx.

56) B 1 / Frierson, p. 213.

주목해 보고자 한다. 칸트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를 주관적 타당성과 객관적 타당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관적 타당성은 통각의 경험적 통일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객관적 타당성은 의식의 근원적 통일인 선험적 통일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험적 의식의 통일은 필연적, 보편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통각의 경험적 통일은 … 구체적으로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주관적 타당성만을 갖는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언어의 표상을 그의 사태(Sache)에 연결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태에 연결한다. 의식의 경험적 통일은 보편필연적으로 타당하게 주어지지 않는다."[57]

기존의 칸트 해석자들은 이 문제를 자연과학적 인식에만 국한시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칸트의 인식론은 자연과학적 인식을 어떻게 보편타당하게 정립하느냐 하는 문제에 국한시켜 보았다. 그러나 논자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은 자연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에는 사회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자연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프라이어슨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차원의 대상과 객관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칸트의 인식의 보편타당성 문제를 사회적 차원의 세계에서 고찰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들이 철학상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논리적 이기주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주관적 타당성을 지닌 판단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

57) B 140 / 권오상, 「칸트의 자아의식과 연역적 상담방법에 관한 고찰」,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 인문학』제 59집, 2014, pp. 151-176.

판단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철학상담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칸트의 철학은 심리치료에 있어서 인지치료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인지치료는 왜곡된 인지구조가 정신병리를 유발한다고 보고 그것을 수정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왜곡된 인지를 인식하고 수정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고의 편향성과 경직성을 제거함으로써 내담자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현실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학적 논의는 피터 라베가 말한바와 같이 내담자가 걱정, 열정, 욕구 등 감성적으로 소외된 상태로부터 자아를 해방시킴으로써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보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세계라고 하는 보다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8]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Freierson Patrick, *Kant's Empiric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2014.

Kant Immanual, *Kritik der reinen Vernuft,* Kant's gesammelte Schriften Band Ⅲ, Druck und Verlag von Georg Reimer, Berlin, 1911.

_____,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Kant's gesammelte

58) 이엽, 「융복합에 관한 철학적 고찰」,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72호, 2015, pp. 460-463.

Schriften Band Ⅶ, Druck und Verlag von Georg Reimer, Berlin, 1917.

_____, *Kritik der praktischen Vernuft,* Kant's gesammelte Schriften Band Ⅴ, Druck und Verlag von Georg Reimer, Berlin, 1913.

_____, *Metaphysik der Sitten,* Kant's gesammelte Schriften Band Ⅵ, Druck und Verlag von Georg Reimer, Berlin, 1907.

Kant's Vorlesungen, Band Ⅵ, *Metaphysic*, Kant's gesammelte Schriften Band XXIX Walter de Gruyter & Co. Berlin, 1983.

Kant's Vorlesung, Band Ⅰ, *Logik,* Kant's gesammelte Schriften Band XXIV, Walter de Gruyter & Co. Berlin, 1966.

Kitcher Patricia, *Kant's Transcendental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2. 논문

권오상, 「칸트의 자아의식과 연역적 상담방법에 관한 고찰」,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 인문학』 제 59집, 2014, pp. 162-164.

김선희, 「소크라테스적 문답」,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철학실천과 상담』 제 3집, 2012, pp. 143-146.

김성진, 「위기에 처한 인간과 철학실천」, 『왜 철학상담인가?』, 학이시습, 2012, pp. 5-7.

박은미, 「논리를 비트는 심리, 심리를 조절하는 논리」, 『철학실천과 상담』 제 1집, 2010, pp. 265-270.

이엽, 「융복합에 관한 철학적 고찰」,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72호, 2015, pp. 460-463.

이영의, 「논리중심치료 : 철학치료와 심리치료의 경계」, 『왜 철학상담인가?』, 학이시습, 2012, pp. 373-380.

이진남, 「철학상담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철학실천과 상담』 제 1집, 2010, pp. 128-136.

이진오, 「철학하기로서의 철학상담 방법론과 교과과정」, 『왜 철학상담인가?』, 학이시습, 2012, pp. 280-283.

3. 단행본

권석만 저,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 학지사, 2012.

민성길 외, 『최신 정신의학』, 일조각, 2006.
이정모 외 저, 『인지심리학』, 학지사, 2009.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04.
존 로버트 앤더슨 지음, 이영애 옮김, 『인지심리학과 그 응용』,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
피터 B. 라베 지음. 김수배 옮김, 『철학상담의 이론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2011.

(**투고일**: 2015. 7. 5 **심사완료일**: 2015. 8. 2 **게재확정일**: 2015. 8. 5)

권오상
소속: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로 55 (풍향동 1-1)
전화번호: 062) 520-4105
전자우편: ssantadad@hanmail.net

[Abstract]

Kant's Psychopathology and a Seeking for the Possibility of Philosophical Counseling

Kwon, O-Sang

This thesis is written for the analysis of the concept 'prejudice' in Kant's *Vorlesung über Logik,* and how it have an effect to the mental disorder. Kant uses the term 'prejudice' to describe the set of way in which otherwise healthy understanding err. Prejudices are faulty principles connecting cognitions, and it's action arouses various error of cognitions, and distorts actual action of understanding in the meaning of psychology. Kant gives an account of the origin of prejudices, then it's important concepts are imitation, habit, tendency. And there are various forms of prejudice, that is the prejudices of excessive trust and mistrust, and the prestige of multitude, and the prestige of ancients, etc. Especially, in the forms of prejudice, logical egoism can be the cause of mental disorder. Kant makes a division the human mental disorder, mental deficiency and mental illness. Above all, mental illness fall into four categories, that is to say, insanity, amentia, craziness, dementia. Kant also describes mental illness for each higher cognitive faculty, there are insanity, amentia, craziness. And Kant assign the lower faculty for dementia and melancholia/hypochondria.

Key Words: Prejudice, Logical egoism, Mental disorder, Mental derangement, Melancholia/hypochondria, Philosophical Counseling, Cognitive therapy